

# 어린이 및 가족의 영적관리

메리암 신부

서울대학교구사목상담연구소

이념에 따라서 호스피스는 모든 종교와 철학을 초월한다고 하나 인간의 연약성을 위한 봉사이므로 문화, 전통, 종교들은 무시하지 못한다.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것 - 사람, 동물, 사물 등등- 은 죽고 썩어지며 먼지가 된다. 이 세상은 무에서부터 창조되었고 다시 무로 돌아가므로 아무리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 중에 인간이 가장 위대하더라도 그 육신은 영원히 살 수 없는 것이다. 말기 암환자가 자신의 일생에서 가장 힘든 이 시기에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려면 닥쳐오는 죽음을 긍정적인 태도로 받아들여야 한다. 불치병이라는 진단을 받는 그 순간부터 환자는 생명의 연장을 희망한다. 그러나 가면 갈수록 몸은 더욱 쇠약해지고 모습은 변해가며 마음의 갈등은 더 심해진다.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지며 친구들과의 관계도 어려워진다.

'나는 암에 걸렸다. 몇 개월밖에 못 산다'는 의식이 점점 심해지는 환자가 죽음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데 있어 호스피스 정신을 가진 봉사자들이 도와줄 수 있다. 의료진은 진통제를 처방함으로써 육체적인 고통을 줄여 편안한 마음을 갖게 도와주지만 동시에 같이 다루어야 할 중요한 부분이 바로 영적인 분야이다.

## 1. 호스피스의 범위

호스피스는 암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면서 동시에 삶과 죽음의 의미를 다루어야 한다. 누구나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는 공포심을 느끼므로 죽음자체에 대해서 이해를 갖도록 해야한다.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내가 왜 이런 심한 고통을 당해야 하는 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죽은 후의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환자의 의문에 무슨 응답을 줄 수 있는가, 약물로 환자의 통증을 감소시킬 수 있지만 마음의 고통을 어떻게 덜어 줄 수 있는가, 환자의 갑작스런 변화를 이해하고 대화를 이끌어 주면서 마음의 고통을 해소시켜 희망과 안정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 2. 영적 관리의 중요성

말기 암환자들을 보살필 때 환자의 모든 능력을 꺼내도록 하고 육체적, 정신적, 정서적 어려움을 극복하게 도와주어야 한다. 인간에게 '종교의식'은 참 중요한 부분이다. 뚜렷한 종교가 없더라도 생, 사, 내세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은 없다. 세계의 각 종교마다 내세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내세를 믿지 않은 사람도 죽은 후의 자기존재에 대한 생각은 있을 것이다. 봉사자는 그 근본적인 의식에 집중함으로써 내적인 위안과 희망을 찾게 할 수 있다. 환자의 영적인 보살핌을 하는 사람은 주로 종교활동을 하는 사람들이지만 환자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환자에게 영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환자는 의사와 간호사에게 생명을 맡기면서 죽음에 관해 물어 볼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영적인 관리는 종교활동을 하는 봉사자뿐만 아니라 환자와 관계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해야 할 중요한 관리인 것이다.

## 3. 관리

- 1) 죽음에 대하여 환자에게 긍정적인 인식이나 신앙심을 심어주는 말이나 특별한 방법이 없다는 것을 봉사자는 인식해야 한다.
- 2) 어려운 이 시기를 환자와 함께 여행한다는 기분을 가지고 동참해야 한다.

- 3) 환자가 가진 종교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대화를 통해 그 종교 안에서부터 위안과 희망을 찾게 해야한다.
- 4) 봉사자의 경험과 믿음을 나누어야 한다.
- 5) 환자의 존엄성과 신앙을 인정하고 강제적인 개종이나 전교를 피해야 한다.
- 6) 설교하는 자세보다 들어주는 자세가 더 필요하다.
- 7) 봉사자의 자세 : 의미가 있는 삶을 가져야한다. 뚜렷한 종교의식이 있어야 한다.  
 삶과 죽음에 대한 자기의식을 알아야 한다.  
 위기에 처한 상대방에 입장에 대한 감수성과 동정심이 있어야 한다.
- 8) 대화란 일방적인 것이 아니며 나눔이다.  
 대화는 들어주는 것과 대답하는 것이다. 대화는 상대방의 사정을 부인하거나 덮어놓는 것이 아니다.  
 대화는 자신의 입장을 이해하도록 하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유도하는 것이다.
- 9) 상대방과 신뢰감이 있는 대인관계를 맺어야한다.  
 인내심이 필요하다. 환자의 말속에서 마음의 아픔을 알아들어야 한다.  
 환자의 느낌과 같이 응답해야 한다. 이것이 “반영적 청취”라고 한다.
- 10) 청취의 필요성: “반영적 청취”의 기술은 상담에 있어서 본질적이다. 봉사자는 상대방의 감정을 느껴야 한다. 말로 표현하기가 괴로운 감정들을 이야기하는 사이사이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알아듣도록 노력해야 한다.
- 11) 위 내용과 같이 호스피스 봉사자가 환자의 감정을 듣지 않으면서 긴말을 한다면 설교하는 것과 같다.  
 또한, 호스피스의 대상자들 대다수는 봉사자의 도움을 원하지 않았을 것이며 원했다라도 봉사자의 역할을 잘 모를 것이다.
- 12) 또한 상대방의 몸짓 (바디랭귀지- 육체적 언어)을 잘 의식해야 한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몸짓으로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봉사자가 눈을 감고 응답하지 않은 환자의 모습이 “빨리 가면 좋은데”라는 의미를 내포할 수 있다. 또, “날씨가 좋은데” 하고 말을 할 때 그것은 일기예보를 듣기 원하는 것보다는 병으로 인해서 앞으로 좋은 날씨를 즐길 수 없다는 뜻이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환자의 아쉬움, 다가오는 죽음에 대한 공포, 가족들과 헤어져야 하는 아픔 등을 의미 있게 들리는 말들 속에서 나타낼 수 있다.

#### 4. 문제점

- 1) 감정에 갑작스런 변화를 일으키므로 환자에게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접근이 되더라도 환자는 무의식적으로 거부하고 심각한 대화를 봉사자와 나누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다.
- 2) 환자들은 봉사자들의 영적인 관리를 전교활동으로 보는 경우다.
- 3) 의료활동과 영적인 관리를 따로따로 생각하는 경우다.
- 4) 상대방의 종교에 대한 지식부족의 경우다.
- 5) 기도나 영적관리를 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의 경우다.

#### 5. 영적관리(간호)의 효과

- 1) 죽음 앞에서 환자가 자기의 기본적인 자력을 이용할 수 있다.
- 2) 다가오는 죽음을 담담하고도 희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 3) 환자의 가족들도 함께 위안을 얻는다.
- 4) 봉사자도 자신의 종교의식을 깨닫게 된다.
- 5) 도움의 필요성을 인식함으로써 봉사자들간의 경쟁심이 사라진다.
- 6) 봉사자도 인간의 연약성에 대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다.

6. 결론

이념에 따라 호스피스 운동은 모든 종교와 철학을 초월하지만 말기 암환자를 보살핌에 있어 종교적인 봉사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의학의 발달로 인하여 불치병 환자의 생명을 더 연장 할 수는 있지만 환자들의 죽음을 맞이하여야 한다.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인간이 진정으로 의미 있는 생활을 하기가 불가능한 것처럼 종교가 없으면 다가오는 죽음을 편안하게 맞이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죽음은 인간에게 있어 큰 두려움의 대상이므로 영적인 도움이 꼭 필요하다. 의료진들이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손을 들더라도 믿음을 가진 봉사자들은 환자가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까지 영적인 관리로 그들을 보살펴야 할 것이다.

〈 어린환자와 대화 〉

봉사자 : 사목자      환자 : 재광      나이 : 11살      성별: 남      병명 : 백혈병      종교 : 천주교  
 가족: 부모, 남동생      면담 : 5번째      면담시간 : 오후 3시 - 3시 15분      장소 : 성모병원소아병동

환자에 대하여 알려진 사실 :

백혈병으로 인하여 다른 병원에 있었는데 골수이식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한 달 전에 성모병원으로 옮겼지만 가족들 중에 맞는 골수가 없어 이식이 불가능 하였고 단지 지금은 통증을 덜어주는 진통제 말고는 가망이 없는 상태이다. 의사는 부모에게 솔직히 재광이의 현재 상태로는 앞으로 2개월 내지 3개월 밖에 살 수 없다고 설명을 하며 퇴원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재광이의 부모는 비록 가난하였지만 병원에서 아이의 죽음을 맞기로 하였다.

주변관찰 :

소아병동6인용 병실이다. 재광이의 옆에 빈 병상이 있고 다른 아이들은 암때문에 입원 중이다. 각 병상에 엄마들은 아이들 옆에 있었지만 피곤하여서인지 잠시 눈을 붙이고 있었고 병실 분위기는 아이들이 있어서인지 밝았고 장난감들이 너저분히 널려져 있었다. 재광이의 왼쪽 팔에는 링겔주사바늘이 꽂혀 있었다. 재광이는 머리카락이 거의 다 빠져있었고 안색이 창백하였고, 그리고 몸도 많이 여위었고 얼굴도 부어 있었다. 한 손에는 만화책을 들고 보고 있었지만 집중력이 없어 보였다. 엄마는 보조의자에 앉아서 깊은 잠을 자고 있었다. 탁상 위에는 성모상, 목주, 성경책이 놓여 있었다.

사 : 사목자      환: 환자      보: 보호자

사 1 : 재광아, 안녕!(미소를 띄우면서)  
 환 1 : .....신부님, 안녕!(관심이나 환영 없이 , 책을 본다)  
 사 1 : 만화책이 재미있어...?(당황, 거부당한 느낌)  
 환 2 : 네. .... 엄마! 신부님이 왔어.(엄마를 깨우면서 사목자를 쳐다보지 않는다.)  
 사 2 : 자매님, 안녕하세요? 오늘 재광이의 기분이 안 좋은가봐요.(환자의 마음을 집중하는 말)

보 1 : 그래요. 말을 잘 안해요. 어제도 주일날인데 미사 보러 가기 싫다고 하고 안 갔어요.  
이 녀석이 왜 그런지 몰라요.(걱정, 답답함) 신부님, 제가 잠깐 매점에 갔다오겠습니다.  
(병실을 나간다.)

사 3 : 재광아! 하느님이 미워서 미사를 안 했어?(하느님에 대한 반응을 이끌어 주는 질문)

환 3 : .....아니예요.... 신부님..... 병원에 들어오기 전에 성당에서 미사 복사했어요. 아이들처럼 같이 하는 것이 재미있었고 아침·저녁기도도 잘 했어요.(하느님에 대한 실망)

사 4 :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몸이 이렇게 아프니까 하느님을 원망하지?(집중하는 대답)

환 4 : 몰라. 너무 아파.... 기도할 생각이 없어(화난 표정)

사 5 : 많이 아프니까 너를 안 도와주신다는 느낌이지.(하느님에 대한 불신을 많이 읽어보면서 대화의 핵심을 이끌어 주려고 하는 말 )

환 5 : 그런가봐(냉정하게) ..... 재호는 열심히인데 ..... 형을 위하여 기도도 한대. 동생을 보고 싶지만 여기에는 면회가 안되는데... 재호가 오면 일층까지 내려가야 해요.(동생에 대한 그리움)

사 6 : 그렇지. 힘들지... 하지만 동생의 기도의 효과가 어때?(영적인 부분을 집중한다.)

환 6 : 몰라... 하느님이 안 들어 주시는가봐. 들어주셨다면 벌써 고쳐 주셨을 텐데... 하느님이 미워...(슬픔, 분노, 실망, 원망) 신부님! 어제 밤에 이 옆에 나와 같은 병을 가지고 있는 해정이가 중환자실에 옮겨갔는데 벌써 죽었는 가봐.(감정의 표현 없이)

사 7 : 기분이 안 좋잖지. ( 마음을 읽어보는 대답) 너 겁을 많이 먹고 있구나.

(불안감을 표현하도록 하는 질문)

환 7 : 무서워. 중환자실에 가기 싫어! 거기에 가면 죽는 거예요.(눈물, 두려움)

사 8 : 재광아! 죽음에 대한 불안이 많지...(공감하는 마음으로) 난 너의 그런 마음을 이해한다.

(동정심, 감수성)

환 8 : ....신부님... 사람이 죽으면 천당에 가지요...(의문, 희망을 모색하는 마음)

사 9 : 그래.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 하지만 하느님 나라에 대한 재광이의 마음은 어때...? ( 조심스럽게)

환 9 : 아빠, 엄마, 동생이 불쌍하지. (자기보다 가정을 더 걱정한다. 아쉬움)

사 10 : 네가 없으면 불쌍하지...(상실의식, 고민 등을 유도하는 대답)

환 11 : 몰라...(속상, 걱정) 신부님! 천당에 가보셨어요?(죽으면 어디로.....하는 궁금)

사 12 : 아니. 먼저 여기서 잘 살아야지...(설교를 피한다.) 왜? 너는 천당에 가는 기분이 어때...(집중)

환 12 : 괜찮아. 천사들도 있는데...(희망을 얻기를 원하는 마음)

사 13 : 글썸, 예수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안 하셨지만 고통 없이 기쁘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이야.

(안심을 시키는 목적으로)

환 13 : 지금 너무 아파서 해정이처럼 죽으면 좋겠지....(체념, 불안을 덮으려고 하는 말)

사 14 : 정말? (계속해서 말할 기회를 주는 말)

환 14 : 신부님, 내가 방학때 장례미사를 몇 번 복사를 했어...(걱정이 되는 기억)

사 15 : 그래, 그때 기분이 어땠었니?(이끌어 주는 질문)

환 15 : 우리가 장난을 많이 했는데.....무서워.....죽은 사람이 다 보고 듣고 있다고 생각했어...(공포, 불안)  
가족들도 울고...죽은 사람이 할머니인데....(노인의 죽음을 이해하도록 한다.)

사 16 : 노인이 그렇지.. 그런데 ...젊은 사람이 죽으면.....(유도하는 말)

환 16 : 신부님, 제가 없더라도 재호가 심심하지 않겠지?(죽음 자체에 대한 회피, 간접적으로 근심을 털어놓는다.)

사 17 : 재호가 섭섭하겠지. 형을 그리워하기도 하고.. 다들 그럴 거야.(공감하는 마음으로 근심을 집중하면서)

환 17 : 정말, 내가 나쁜 짓을 많이 했어... 그래서 아빠와 엄마한테 야단을 많이 맞았는데.(후회하는 마음)

사 18 : 아빠, 엄마한테 미안하니?(대화를 이끌어 주는 말)

환 18 : 신부님, 만화책을 보세요?(회피, 집중하기가 힘들다.)

사 19 : 그래, 내가 나이가 많은데도 재미있어.(긴 이야기를 안하고 동시에 재광이의 질문대로 대답한다.)

환 19 : (웃으면서) .. 신부님은 할아버지다..신부님..죽음을 안 무서워하지...(확신을 얻으려고 하는 질문)

사 20 : 글썸, (긴 설명 없이)...재광이는..?(집중)

환 20 : 아니, 오래 잠을 자는 것이지. 편안하게...아픔 없이.....(자신을 격려하는 소리)

사 21 : 그래, 하느님과 함께....(설교 없이)

환 21 : 제가 하느님 나라에 가면 아빠, 엄마, 재호를 위하여 기도 할 거예요. 신부님도(안심)

사 22 : 꼭 해 주어. 그럼, 오늘 그만 이야기하자. 기도 한 마디 하자. 너먼저, 다음에 나....

(재광이가 부모와 동생을 위하여 기도한 후에 사목자가 강복을 주고 떠났다.)

## 분 석

### 1. 환자의 근심

죽음에 대한 불안감과 중환자실에 갑자기 옮겨졌다가 죽었던 해정이 때문에 충격을 받았다. 자기도 죽는다는 사실을 조금은 인식하였지만 죽음 자체에 대하여 알고 싶어하는 것이 많았다. 어린이의 마음으로 부모나 동생에 대한 근심도 많았다. 상실의식이 강하다.

### 2. 사목자가 마련한 도움

드디어 중요한 안전을 나눌 수 있었다. 가망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목자가 죽음에 대한 암시를 주면서 재광이의 반응을 알아보았다. 재광이가 어린아이여서 죽음에 대한 이해의 폭이 좁아 좀 더 이야기를 나눌 것이 좋을 것 같아 자신이 머지 않아 떠날 것이라는 것에 대하여 자유롭게 말을 나누었다. 어른처럼 이해하면서 죽음에 대한 공포심을 다룬 것이 아니고 겸허한 자세로 수용할 수 있겠끔 도와주었다고 생각한다.

### 3. 사목자의 주관적인 반응

재광이를 자주 만났지만 대화가 주로 잡담과 장난뿐이었다. 이 면담은 심각한 안전에 대한 대화였는데 사목자가 어린이의 솔직한 반성과 질문을 듣고 놀랐고 당황하였다. 사목자의 입장으로 죽음의 준비를 시켜야한다고 알고 있었지만 인간적인 면으로 생각할 때 재광이가 그냥 아무 것도 모르는 채 눈을 감고 가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였다. 재광이가 병원에서 겪은 충격(해정의 죽음)과 설명하기 힘든 질문을 하였을 때 사목자는 불안하였다. 죽음에 대한 생각이 너무 깊으면 재광이가 우울해지지 않을까? 마음이 너무 비참하지 않을까? 하지만 아이가 나이에 비해 성숙하여서인지 고민을 털어놓고 이야기를 나눌 때 사목자는 안심이 되었고 대화를 부드럽게 이끌어 주었다고 생각한다. 대화 끝에 재광이의 마음이 편안함을 느끼는 것 같아 사목자는 안심이 되었다. 보람이 있는 면담 이었다고 생각했다.

### 4. 계획

자주 방문하고 가능하면 이번 면담과 같은 대화를 계속하여 재광이가 자기 마음을 더 뚜렷하게 털어놓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고 싶다. 하지만 재광이의 기분대로 따라야 할 것이다. 어머니와 대화를 함으로써 부모님이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